교회소식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2012년 교회표어: 그 한사람, 그 예배자 (요한복음 4:24)

1 성경통독: 신약성경 1독을 위한 성경통독이 있습니다.
일시: 2.14(화)-16(목) 오전 9시 40분 - 오후 2시 40분
장소: Chapel Room 회비: 30불(점심값). 신청: 경덕현 집사 (성인 교육부)모임

2 모임: 각 공동체장 및 인도자 모임이 1부 예배 후에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3 음악회: 코리안 가든 건립을 위한 음악회가 있습니다. 티켓 문의: 정혜숙 집사
일시: 2012년 2월 11일(토) 저녁 7시 30분 장소: Westlake Boys High School 강당

4 음악교실: 갈보리 음악 교실을 개강합니다. 등록비:$30
기간: 2월 10일(금) ~ 3월 31일(토) 8주간 문의: 송민영 집사 (940-3381)

5 열심: 예배 순서를 맡은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합시다.

6 요람: 2012년 교회 요람이 발간되었습니다. 수고한 성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7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8 감사: 오늘 식사 준비해 주신 주방팀 및 여러분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9 신청: 바누아투 학생을 위한 후원자 신청을 받습니다.

교우소식

1 명예 집사: 고명분

2 사임: 정관영 장로

갈보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

해외 선교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사역)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사역)
바누아투: 삼마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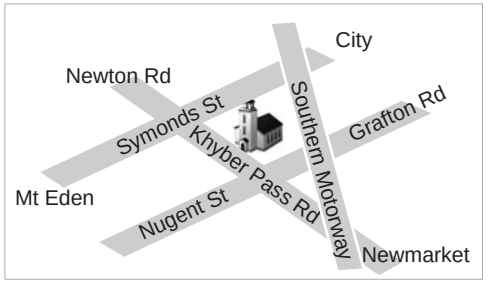
국내 선교

밀알장애우 봉사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주일2부예배	주일 PM 3:00	본당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2012년 2월 5일

14권 6호
교회창립 1999/07/14

2012 그 한사람 그 예배자 (요4:24)

나는 언제까지 발목 신자(?) - 이동술 집사

나는 가끔 아내에게 핀잔을 들을 때가 있다. 이유인즉 새롭게 알게 된 분들과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신앙생활 쪽으로 화제가 모아질 때가 있다. 그분들로부터 "혹시 교회에 나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주저 없이 "네 교회에 나갑니다 하지만 아직 초신자입니다" 라고 대답한다. 그분들과 헤어져 아내와 둘만 있게 되었을 때 아내는 "자기가 어떻게 초신자야, 자기는 초신자가 아니야. 그리고 명색이 안수집사가 그렇게 말하면 돼?" 라고 핀잔을 준다.

속된말로 일요일에 심심해서 이민 온 다음 해인 2002년도부터 아내와 애들을 따라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듬해에 세례받고 몇 년 뒤 서리집사가 되고 또 몇 년 뒤 안수집사 직분을 받는 그야말로 속전속결의 신앙생활이었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지 모른다고 그야말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교회생활이었다. 그러나 해가 거듭하면 할수록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과 허탈함으로 인해 마음 아파할 때가 많았다.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시작한 신앙생활, 말씀이며 기도며 또 찬양이며 어느 것 하나 내안에 성령 하나님의 뜨거움이 함께 하는지에 항상 의문부호를 달게 된다. 그리고 간혹 나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보곤 한다. 나는 주일이 되면 그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생각 없이 교회에 발길을 들여놓고 경건하고 은혜롭고 축복받은척하는 무늬만 신자인 나일론 신자는 아닌가? 아니면 발목 아래만 살짝 담가두고 발목 위의 신체는 항상 세상과 접하여 세상을 사랑하며 즐기며 살아가는 발목 신자(?)는 아닌가?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변화가 없고 뜨거움이 없고 은혜로움이 없고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의미 없는 신앙생활의 연속은 아닌가에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된다. 변해야 한다. 정말 변해야 한다.

갈멧산에서 엘리야 선지자 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850명과 대결할 때 그저 손바닥만한 징조밖에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폭포수 같은 비를 내리게 하셨던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의 마음으로 다가설 때, 진실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엘리야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폭포수 같이 넘쳐나는 비를 내리게 하여주시고 메말랐을 때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시고 추울 때 성령의 불을 지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하면 나의 가정과 내주변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음을 알고 이제는 의미 없는 발목 신자에서 벗어나 초심으로 돌아가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아멘-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 - 369-5077 Ph: 09-475-6312 www.calvary.org.nz

주일 1부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시편 43:3-4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 찬송	15장	다함께
※ 성시교독	16. 시편 28편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270장	다함께
대표기도		정덕수장로
성경봉독	사도행전 7:1-4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은혜의 선물	이태한목사
찬송	497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살아 계신 주(1,3절)	다함께
※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2부예배 (15:00)

인도: 심창진목사
찬양 / 심창진목사
기도 / 박후임집사
성경봉독 / 눅6:35-38
설교 / 하나님 나라의 윤리/ 심창진목사
찬송 / 은혜로다
헌금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축도 / 심창진목사

수요예배 (19:30)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수요찬양단
기도 / 김광자집사
성경봉독 / 삿6:33-40
설교 /은혜 후의 시험/ 이태한목사
합심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찬송 / 342장
주기도 / 다함께

⊙ 2월 교회일지

교사교육:
2월 4일 (토)
성경통독:
2월 14일 (화)
- 2월 16일 (목)
사순절 1:
2월 26일 (주일)

⊙ 2월 예배봉사자

예배안내 :
이광희
새신자 안내:
심경순/김광자
주차안내:
양봉욱
주방봉사
한상순/김재연/
장태옥/오지연

⊙ 기도순서

다음 주일 1부: 이광희 장로
다음 주일 2부: 박형길 청년
이번 주 수요기도: 김광자 집사
이번 주 애찬기도: 최충일 집사
2월 19일 1부: 현석호 장로
2월 19일 2부: 장연식 집사
2월 15일 수요기도: 김봉희 집사
2월 15일 애찬기도: 최광암 집사

금주의 기도제목

1. 방사선 치료를 준비 중인 기섭이가 담대함 속에서 치료에 임하도록. 이 일을 주관하는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듯한 현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족들이 되도록.
2. 공동체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되어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로 믿음이 더 성숙하는 각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가 넘치도록 공동체장들에게 구성원을 품는 넘치는 은혜가 임하도록.
3. 신약 성경 일독을 위한 성경통독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참여한 자들이 성경 읽기에 전념하도록 형편과 처지가 형통하도록.
4. 바누아투 삼마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하고 Elder들에게 충만함이 풍성하고 후원하는 학생들이 가난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학업에 매진하도록.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지치지 않고 주신 사역 잘 감당하도록.

기도는 나의 힘

힘 있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돈 많은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잘나가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그들은 하늘을 보지만 땅에다 대고
오직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어린 아이의 천진한 기도는 하늘에 통한다
무력한 자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이 받는다
정의를 위해 외치는 기도는 하늘을 울린다

이 지상에 의지할 데 하나 없어 하늘밖에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오직 기도밖에 없는 자의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기도는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니

(나눔 문화 숨고르기 중에서~)